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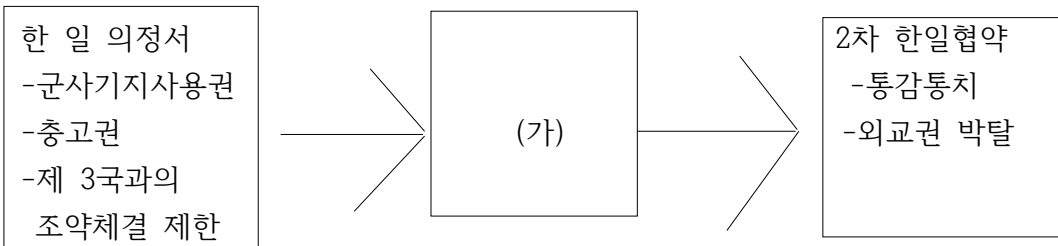
한국사 문제 6월26일

1. <보기> 자료가 쓰여 진 시대의 조선의 정치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

선혜청을 설치하였다.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"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 관청의 방납인 에게 막혀, 한 물건의 값이 3~4배 또는 수십, 수백 배로 징수되어 그 폐해가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특히 경기도가 심합니다. 지금 별도의 담당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, 가을에 백성들에게 쌀을 거두는데, 토지 1결마다 두 번에 걸쳐 각 8두씩 거두어들이게 하고 담당 관청은 수시로 물가 시세를 보아 쌀을 방납인 에게 지급하여 물건을 조달하도록 해야 합니다.

- ①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하여 파가 나뉘어졌다.
- ② 실리를 중시하는 북인들이 왕과 결탁하였다.
- ③ 왕이 탕평을 하고자 했으나 환국이 일어나 정국이 혼란하였다.
- ④ 왕위계승의 정통성 문제로 예송논쟁이 발생하였다.
- ⑤ 반정을 주도한 서인과 비집권세력인 남인이 공존하였다.

2. (가)시기의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

- ① 1차 한일협약에 의해 들어온 관리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.
- ②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 규정을 어겼다.
- ③ 대한제국이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.
- ④ 일본 내부분서로써 황무지개간 등 조선침략방안을 논의하였다.
- ⑤ 러일전쟁이 종식되었다.